

- 주요 뉴스: 이란, 이스라엘-미국과의 대화 의사 피력. 이스라엘의 對이란 공습은 지속
  - G7 정상회의, 경제 활성화 및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등에 합의할 전망
  - EU, 미국과의 무역협약에 난항. ECB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기대
  - 중국 6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 강화 모색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갈등 완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이란의 휴전 및 핵협상 제안, 빅테크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6월 FOMC 앞둔 관망 분위기 속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중동 정세의 개선 가능성 등으로 상승  
독일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56.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9.4원, 0.32% 하락). 한국 CDS 하락

|    |      | 6/16일   | 6/13일   | 전일대비   |                 |       | 6/16일   | 6/13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6,033.1 | 5,977.0 | +0.94%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4.45%   | 4.40%   | +5bp   |
|    | 유럽   | 546.91  | 544.94  | +0.36% |                 | 독일    | 2.53%   | 2.54%   | -1bp   |
|    | 중국   | 3,388.7 | 3,377.0 | +0.35% |                 | 영국    | 4.53%   | 4.55%   | -2bp   |
|    | 일본   | 38,311  | 37,834  | +1.26% | CDS<br>5y       | 한국    | 27bp    | 28bp    | -1bp   |
|    | 한국   | 2,946.7 | 2,894.6 | +1.80% |                 | 중국    | 46bp    | 47bp    | -1bp   |
| 환율 | 달러지수 | 98.13   | 98.18   | -0.05% | 위험<br>지표        | EMBI+ | -       | 371     | -      |
|    | 유로화  | 1.1561  | 1.1549  | +0.10% |                 | VIX   | 19.11   | 20.82   | -8.21% |
|    | 엔화   | 144.75  | 144.07  | -0.47% |                 | WTI유  | 71.77   | 72.98   | -1.66% |
|    | 위안화  | 7.1802  | 7.1832  | +0.04% | 원자재             | 구리    | 483.6   | 481.5   | +0.45% |
|    | 원화   | 1,363.8 | 1,369.6 | +0.43% |                 | 금     | 3,385.2 | 3,432.3 | -1.37%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이란, 이스라엘-미국과의 대화 의사 피력. 이스라엘의 對이란 공습은 지속

- WSJ 등에 따르면, 이란은 제3국을 통해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 동시에 미국에는 이스라엘의 對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으면 최근 중단되었던 핵협상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핵시설 파괴 등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 공격을 멈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핵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이 파괴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
- 실제로 이스라엘은 16일에도 군사시설 및 군 관계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 국영방송국 IRIB에 대한 공습도 감행.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대화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되었다고 느껴야 공격을 멈출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스라엘도 장기적인 소모전을 이행하기는 어렵기에 결국 외교적 노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
- 로이터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이어 최근 일부 가스전도 공격하고 있으나 주요 석유 수출 시설에 대한 공격은 자제.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이란의 전쟁만으로 국한된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Bloomberg Economics)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G7 정상회의, 경제 활성화 및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등에 합의할 전망

- 로이터가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G7 국가의 정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공과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등에 의견을 같이할 방침. 특히 G7은 시장 원칙에 기반을 둔 공급망 마련이 국가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 아울러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등도 강조

## ■ 미국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전월비 하락.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협정 서명

-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16을 기록, 전월(-9.2) 대비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 이번 결과는 관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 다만, 세부항목 가운데 수주 및 출하량 등이 반등하여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다는 신호도 발신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있었던 양국 간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 당시에 합의했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부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

## ■ EU,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난항. ECB 권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기대

- 유럽위원회는 EU가 미국의 10% 관세율은 수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 또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미국의 관세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ECB의 권도스 부총재는 중기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연율 2%) 달성에 근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첨언. 현재 시장에서는 ECB가 연내 1회의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

## ■ 중국 6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 강화 모색

- 6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6.4% 늘어 예상치(5.0%) 상회한 반면, 산업생산은 5.8% 증가하여 예상치(5.9%) 대비 낮은 수준. 국가통계국은 정책 효과로 일부 소비가 회복되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내부 동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
-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량의 희토류를 보유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 또한 해당 지역의 영향력 강화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로이터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데, 미국이 베트남의 중국 첨단 기술 의존도를 줄이도록 압박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6/1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소매판매·수입물가·산업생산,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 중앙은행,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한 접근 예상 - Financial Times**  
(Israel-Iran tensions test central banks' appetite for rate cuts)
  - 팬데믹 이후 소비자물가 급등 여파로 주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경계심이 상존. 특히 연준은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당분간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동 긴장 고조는 이를 더욱 강화시킬 소지(ING)
  - 무역 전쟁은 대부분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를 초래하나, 상당 기간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부 상쇄. 하지만, 유가 상승은 무역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심화시킬 우려(AGM). 이에 주요 중앙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유가 급등 불확실성 위험을 반영하며, 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할 전망
- **유가의 지정학적 충격 여파는 대부분 단기로 국한. 경제 영향도 제한적 - Financial Times**  
(What history tells us about the impact of an oil price jolt)
  -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유가 압력은 단기에 그친 경우가 다수. 일례로 9·11 테러 직후 공급 차질 우려로 브렌트유 가격이 5% 급등했으나, 경기 둔화로 인한 석유 수요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14일 만에 25% 급락. 또한 '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주간 브렌트유 가격이 30% 급등했으나, 8주 만에 이전 수준으로 회귀
  - 한편,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일일 200만배럴인데, 사우디와 UAE의 일일 증산 능력이 350만배럴임을 감안하면 유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 아울러,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이 경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달러스 연은). 이에 중동 전반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없다면 이번 유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전망
- **중국의 양호한 5월 소매판매, 취약한 소비심리 고려 시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 - 블룸버그**  
(China's Consumer Boom Seen Temporary as Weak Sentiment Persists)
  - 중국의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6.4%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 이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온라인 쇼핑 축제와 TV 등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공 등에 기인.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정 기간의 판매 급증은 이후 매출의 부진으로 연결. 아울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품목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
  - 또한 주택가격 하락, 광범위한 분야의 임금 삭감, 산업생산과 투자활동 둔화 등은 기업 이익과 가계 구매력을 압박하며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우려.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을 위해서 소비심리 개선이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과 기업의 비용 절감 등으로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ING)

■ **중국 경제 문제의 본질은 과잉 투자, 소비 억제는 오해 - Financial Times**

(The myth of the suppressed Chinese consumer)

- 중국에서 소비가 억제된다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며, 21세기 이후 중국 민간소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낮은 이유는 소비 억제가 아니라 인프라·부동산 등의 투자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
- 중국의 투자는 GDP의 40%가 넘는 극단적인 수준으로, 중국은 부채를 동원하여 이러한 과잉 상태를 20년 넘게 유지. 이는 내부 자원 배분의 왜곡은 물론, 초과 생산품 수출로 외국과의 갈등까지 유발
- 중국 경제 문제의 본질은 소비 억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왜곡된 성장 전략과 과잉 투자.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높은 부채를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은 2.5%가 합리적. 인위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성장 속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

■ **연준, 6월 금리동결 예상. 여타 중앙은행과의 정책 괴리도 확대될 소지 - 블룸버그**

(The US is exceptional - When it comes to rates)

■ **미국 AI 기업, 사업 및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중동 투자에 주의 요구 - WSJ**

(AI Companies Should Be Wary of Gulf Spending Spree)

■ **국제 유가의 제한적 상승, 지정학적 요인보다 지경학적 여건이 좌우하기 때문 - Financial Times**

(Why is the oil price not surging?)

■ **美中 新냉전시대, 칩(Chip)에 이어 희토류가 무기화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 - 블룸버그**

(Chips Won the Cold War. Rare Earths May Win the Next)

■ **일본 채권시장의 혼란,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예고 - 블룸버그**

(Japan's Bond Chaos Heralds More Volatility in Global Markets)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